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평화세상을 여는 녹색교회



하나님께서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 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서울시 용산구 청파동 3가 85 / 전화 713-5254 (사무실) 717-2605 (담임목사실)  
HOME PAGE: [www.chungpa.or.kr](http://www.chungpa.or.kr)

# 주 일 낮 예 배 순 서

【 성령강림절 후 제9주 】

전 주 ..... 반주자  
 은총을 기리는 노래 ..... 주의 전에 나올 때 ..... 다함께  
 예배로의 부름 ..... 인도자

♠ 경배의 찬송 ..... 47. 주여 우리 무리를 ..... 다함께

♠ 공동기도 ..... 다함께

자비하신 주님, 아프가니스탄에서 들려온 한 생명의 사망소식으로  
 우리들의 마음은 참으로 어둡습니다. 분쟁과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서 무고히 죽어가는 이들의 신음소리가 귓가에 들리는 듯합니다. 지  
 금도 억류되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주님의 자녀들을 긍휼히 여겨주  
 십시오. 인류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이 담긴 생명 하나하나를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고 섬기는 그러한 날이 속히 이르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 가운데 일상화된 폭력들도 많이 있습니다. 서로를 향  
 한 말은 거칠고 눈길은 가파릅니다. 주어야 할 사랑은 생각지 않고  
 받아야 할 대접만 힘주어 말합니다. 주님, 누구를 대하든지 주께 하  
 듯 할 수 있는 선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이 시간 겸손히 주  
 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채워주십시오. 예수님  
 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 참회의 침묵기도 ..... 다함께

♠ 위로의 말씀 ..... 롬8:33-34 ..... 인도자

♠ 교 독 문 ..... 19. 시편 84 편 ..... 다함께

♠ 영 광 송 ..... 6. 찬양 성부 성자 성령 ..... 다함께

대표기도 ..... I. 박정숙 선생 II. 구성실 장로

응 답 송 ..... 찬양대

찬 송 ..... 491.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 다함께

성경봉독 ..... I. 막5:35-43 ..... 인도자

II. 신30:15-20 정경례 집사

찬 양 ..... 찬양대

말 씬 ..... I. 두려워말고 믿기만 하라 ..... 장영숙 전도사

II. 생명을 택하라 ..... 김기석 목 사

거듭기도 ..... 다함께

- 현신의 찬송 ..... 357.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 다함께
- 헌금봉헌 ..... 연주: 홍지희양 ..... 다함께
- ♠ 봉 헌 송 ..... 69. 나 가진 모든 것(1,2) ..... 다함께
- ♠ 봉헌 및 목회기도 ..... 인도자
- 공동체 소식 ..... 인도자
- ♠ 평화의 인사 ..... 다함께
- ♠ 보냄의 말씀 ..... 다함께

인 도 자 :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행복과 불행은 스스로 선택하는 것임을 잊지 마십시오. 갈림길에서 주님이 주신 복된 평안을 선택하는 자들이 되십시오.

다 함 께 : 아멘.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유혹들에 한눈 팔지 않고 살겠습니다. 비록 어렵고 힘들더라도 사랑과 순종의 길을 걷겠습니다. 자신을 부인하겠습니다. 주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겠습니다. 우리의 기다림이 주 안에서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 ♠ 결단의 찬양 ..... 하나님 눈길 머무신 곳 ..... 다함께
- ♠ 축 복 ..... 담임목사

☼ **우리는 주님의 빛을 받아 환히 열린 미래를 봅니다** ☼

주일 오후 집회	수요 집회
신약성서의 맥 / 김기석 목사	성서로 배우는 평화
기도 : 이춘희 집사	기도 : 김승현 집사

다음 주 예 배 위 원	설교	기도	성경봉독
	김재흥 목사 김기석 목사	임보람 선생 윤석철 장로	인도자 이광섭 집사

7월	영접위원	김철수	김인걸	최철수	배상순	박애순	권미숙
	헌금위원	한상익	김용진	이인웅	구명자	안정숙	백혜숙

## 판단에 대하여

아무도 판단할 필요가 없는 당신을 상상해 보라. 상대가 착한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결정할 의사가 전혀 없는 당신을 상상해 보라. 타인의 행동의 도덕성에 대해 가타부타해야 할 것 같은 부담에서 완전히 벗어난 당신을 상상해 보라.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않아!”라고 말할 수 있는 당신 자신을 상상해 보라.

상상해 보라. 그것이 바로 진정한 내적 자유가 아니겠는가? 4세기의 사막의 교부들은 “남을 판단하는 일은 무거운 짐이다”라고 말했다. 내 삶에도 타인에 대한 판단에서 온전히 벗어났던 순간들이 더러 있었다. 내 어깨에서 무거운 짐이 떨어져 나간 기분이었다. 그럴 때면 나는 만나거나 듣거나 책에서 접하는 모든 사람에 대해 넘치는 사랑을 맛보았다. 모든 이들과의 깊은 연대감 그리고 그들을 사랑하려는 깊은 열망이 내 안의 모든 벽을 허물고 내 마음을 우주처럼 넓혀주었다.

트라피스트회 수도원에 7개월간 머문 후에도 그런 수난이 찾아왔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내게 어쩌나 충만했던지 어디를 가든 선밖에 보이지 않았다. 심지어 폭력과 파괴와 범죄의 이면에서도 선이 보였다. 내게 식료품이며 꽃이며 새 옷을 파는 남녀들을 끌어안고 싶은 충동을 자제해야 했다. 그들 모두가 성인처럼 보였다!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성령의 움직임에 주목하기만 한다면 그런 순간은 누구나 있게 마련이다. 그것은 천국의 맛보기요 아름다움과 평화의 첫 열매다. 그 시간을 우리는 자칫 꿈이나 시적 상상의 산물로 일축하기 쉽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어깨를 두드리시며 우리 실존의 가장 깊은 진리를 보여주시는 순간이다. 그 시간을 그렇게 주장할 때 우리는 남을 판단해야 할 것 같은 부담과 매사에 만인을 평가하려는 성향에서 점차 벗어날 수 있다. 그리하여 참된 내적 자유와 참된 성화를 향해 자라갈 수 있다.

그러나 남한테 판단받는 가벼운 짐을 기꺼이 질 때에만 우리는 남을

판단하는 무거운 짐을 벗을 수 있다!

## 염려에 대하여

사람들은 “걱정 마세요. 다 잘될 겁니다”라고 말하곤 한다. 그러나 우리는 염려한다. 염려란 누가 그만두라고 해서 그쳐지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자녀, 친구, 배우자, 직장, 미래, 가정, 나라, 세계 문제로 쉴 새 없이 염려한다. 인생의 고통스런 한 단면이다. 염려의 소재는 무궁무진하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마 6:27) 하신 예수님의 물음의 답을 우리는 잘 안다. 염려해 봐야 도움도 안되고 문제도 풀리지 않는다는 것을 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염려가 많고 그래서 고생도 많다. 염려를 그만두고 싶어도 방법을 모른다. 오늘 그토록 염려하던 일을 내일이면 잊어버리리라는 것을 설사 안다 해도 생각에서 염려를 떨치기란 여전히 불가능하다. 염려를 줄이고 좀더 편안해질 수 있는 길이 있을까? 염려로 아무 것도 달라지지 않는 것이 사실일진대 어떻게 마음과 생각을 훈련해야 우물 안 개구리 식의 불안한 생각에 시간과 에너지를 허비하지 않을 수 있을까? 예수님은 말씀하신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그 속에 바른 방향의 힌트가 들어 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마6:26, 33-34)

-헨리 나우웬, <<예수, 우리의 복음>> 중에서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이 의무일 필요가 없고 언제나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이라면 세상은 정말 멋지지 않을까요? 봉사가 의무가 아닌 삶의 방식이며, 자연스러운 사랑과 연민의 표현이라면 말입니다. 그런 사회를 만드는 것은 절대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저 그렇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것뿐입니다.

## ■ 마/음/으/로/위/는/글

### 기쁨 꽃

한번씩/욕심을 버리고  
미움을 버리고  
노여움을 버릴 때마다  
그래 그래/고개 끄덕이며  
순한 눈길로/내 마음에 피어나는  
기쁨 꽃, 맑은 꽃

한번씩/좋은 생각하고  
좋은 말하고/좋은 일할 때마다  
그래 그래/환히 웃으며  
고마움의 꽃술 달고/내 마음 안에 피어나는  
기쁨 꽃, 밝은 꽃

한결같은 정성으로  
기쁨 꽃 피워내며  
기쁘게 살아야지  
사랑으로 가꾸어  
이웃에게 나누어줄  
열매도 맺어야지  
(이해인)

### ◇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 ◇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흥	원로전도사 : 박옥식
전도사 : 장영숙 이성운	소속목사 : 김준우 한인철 양재성	
원로장로 : 김춘려 전영규 김성한 윤정덕 강인식		
장로 : 김철수 조병무 한완식 구성실 윤석철 방문성 한상익		
지휘 : 윤주원 안홍숙	반주 : 최윤선 한선희 김수진 최미선	
차량 및 교회 관리 : 오진훈	도서관 관장 : 이순정	

## ◇ 헌 금 영 수 기 ◇

**십일조헌금:**

김철수 유영남 고광송 이춘희 김창원 정지은 박창운 허정운 오자영  
 이봉옥 이유선 방극숙 임영림 정경례 임승동 백혜숙 조문규 진정숙  
 최종원 박정숙 권미숙 임보람

**월정헌금:**

고속이 고재중 정현창 김성자 권혁순 박혜경 김승현 김수진 하현철  
 최성애 황원순 황자순 김순자 류건형

**감사헌금:**

고속이 오현정 허경기 오정숙 정복순 이정은 오광자 무명3

**생일감사헌금:** 정진경

**캄보디아 우물헌금:** 최문희 김병희 안정숙

100주년 기념 감사헌금: (누계: 85,490,000원)

## ◇ 속 회 보 고 ◇

속 명	인 도 자	속 장	모 인 곳	다음 장소
에루살렘	장혜숙	장혜숙	심	심
베들레헴	노순옥	정경례		
안디옥	임정자	이춘희		
가나안	문영혜	박경선		
갈릴리	안정숙	박애순		
베다니	박홍재	곽권희		
시온	박효선	허정운		
엠마오	최숙화	권미정		
에베소	이순정	김금순		
빌립보	이형숙	권미숙		
가버나움	안홍숙	오현정		
나사렛	백혜숙	정옥영		
갈라디아	송양진	유경순		
고린도	이영란	이증자		
다메섹	박혜경	최영혜		

## ■ 교/회/소/식/

◎ 그리스도인에게 선교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

1. **오후집회** : <신약성서의 맥 잡기>가 계속됩니다. 오늘부터 마가복음을 공부합니다.
2. **봉사** : 종묘 급식 봉사는 8월 15일(수)로 연기합니다.
3. **수양회** : 8월 6일부터 8일까지 충주제일교회 수양관에서 열리는 전교인 수양회에 많이 동참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가 신청은 각 선교회장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4. **수양회 준비 모임** : 준비위원들은 오후 1시 10분에 세미나실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5. **청년모임** : 청년을 위한 열린신앙 강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모임은 수양회 준비관계로 오후 2시에 모입니다.
6. **교우 새 책** : 정수복 교우가 『한국인의 문화적 문법』 (출판사: 생각의 나무) 책을 펴냈습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7. **신앙실천** : 전 세계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일꾼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 식당 봉사 : 빌립보 속

토요봉사(4일): 광혜자 유영남

\* 캄보디아 우물 기부 신청자 : 박홍재(생일) 이금나(생일)

8월	영접위원	조병무 김용진 권혁순 박효선 이형숙 박혜경
	헌금위원	김철수 이호원 박창운 배삼순 박효선 정영선

## ◇ 집 회 안 내 ◇

부별	시간	장소	부별	시간	장소
유 아 부	10:50	유아부실	1부예배	09:30	교육관
유 치 부	10:50	유치부실	2부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 육 관	오후집회	14:00	교육관
중고등부	10:50	중고등부실	수요집회	19:30	교육관
청 년 회	13:30	청년회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